

중부일보

2020년 12월 02일 (수)
03면 종합

한반도 평화 정책 '청년 목소리' 담는다

도, 남북협력 방안 등 5일 토론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들과 머리를 맞댄다. 도는 '대한민국 청년 평화토크콘서트'가 오는 5일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가는 길! 평화로 가는 길!'을 주제로 진행될 이번 콘서트는 평화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진행될 이번 토크쇼에는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북한출신 박유성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지현 경기지원 봉사센터 청년봉사단원 등이 참여한다.

토크쇼는 북한청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조명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이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당장 필요한 조치, 청년들이 바라는 새로운 남북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각각 대표하는 전용기, 류호정 두 명의 청년 국회의원들이 패널로 참석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입담대

결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동서양 악기 퓨전 국악밴드 '도시'의 음악공연이 준비돼있어, 콘서트를 더욱 풍성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도는 청년 국회의원과 북한출신 대한민국 청년,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청년이 한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다양한 계층을 주인공으로 하는 평화토크쇼로 확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겠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서울신문

2020년 12월 02일 (수)
05면 정치

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법안소위 단독 의결

국회 본회의 처리 53개 안건 주요 내용

'조두순 방지법'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 행안위 의결
'BTS 병역법' 통과- 30세까지 입대 연기
공직자 주시 이해충돌 방지 규정 강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남북 합의서에 어긋나는 행위인 국

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선전광고) 게시,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퇴장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도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

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 기록은 삭제하는 내용의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의결했다. 복직은 해직 당시 직급으로 하게 된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회의 입대를 30세까지 연기하는 'BTS(방탄소년단) 병역법' 등 53개 비쟁점 안건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또 고위 공직자의 주시 관련 이해충

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 법안

- ▶ **병역법 개정안**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군 징집 및 소집 연기
- ▶ **공무원연급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순직 공무원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보육급여 전부 혹은 일부 받지 못함
-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한 경우 보유 주식 관련 직무편어금지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대상업종을 '병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
- ▶ **건축법 개정안**
건축자재 품질인정 제도 도입해 건축자재 성능시험 뿐 아니라 생산 공정의 품질 관리 상태도 점검

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순직 공무원에게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급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민도기자 key5088@seoul.co.kr

사진에 녹아있는 지뢰 피해자들 9명의 아픔



연천에 위치한 폐벽돌공장에서 지뢰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 100여 점을 볼 수 있는 전시, '인생나무, 인생사진' 전시. '인생나무, 인생사진' 전시가 열린다.

/경기문화재단 제공

경기문화재단 '인생나무, 인생사진'展

연천 폐벽돌 공장서 작품전 열어 9명 사진·영상작품 100여점 소개

연천에 위치한 폐벽돌공장(신중앙요업)에서 지뢰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의 일정으로 선보이는 '인생나무, 인생사진' 전시가 그것이다. 이번 전시는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현)의 경기북부 DMZ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사)평화나눔회가 주관한다. 전시에선 김문정 경성대 사진학과 교수가 촬영한 지뢰 피해자 9명의 사진과 영상 작품 100여 점이 소개된다.

김문정 교수는 "지뢰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숙명처럼 조우하게 된 지뢰 폭발로 인해 겪었던 너무나 큰 소음과 강한 충격으로 가지를 잃어버린 나무가 돼 좌절했다"며 "하지만 깊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나무가 새로운 가지를 치듯, 힘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는 지뢰 피해자의 강렬함과 따뜻함을 담아낸 포트레이트와 피해자들이 직접 연출

해 자신의 모습을 담은 '셀프 포트레이트' 콘셉트와 나무와 자연 등의 풍경을 담은 사진 두 가지로 큐레이션됐다.

작업은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됐으며,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상처들을 스스로 꺼내보여줄 수 있게까지 만들었다. 직접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서 말이다. 두 손이 없는데도 셔터를 누르고, 긴 바지로 숨졌던 잃어버린 다리의 흔적을 스스로 촬영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도전적인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평화나눔회 조재국 상임이사는 "지뢰로 입은 상처를 정면에서 포토그래퍼의 앵글로 응시해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노출하고, 세상의 그늘에서 숨어 지내던 지뢰 피해자 당사자들이 '인생 사진'을 통해 직접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면서 "지뢰 등 전쟁 유물 제거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픈 행사는 5일 오후 2시에 개최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한편 연천 폐벽돌공장(가칭 : 피스블릭 하우스)은 경기문화재단에서 'DMZ 문화 예술 삼매경'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을 추진 중인 복합문화공간으로, 향후 평화·생태·창조·사회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강경숙 기자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걸작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화산과 용암이 만들어낸 걸작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지난 7월 7일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내 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으로 인증됐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의 3대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국제적으로 자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명승과 경관이 있는 자연유산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자연유산을 보충·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자연유산의 보충은 물론 교육·관광적 활용을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특징이 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시 및 강원도 철원군이 한탄강을 중심으로 총 1165.61㎢의 면적을 갖고 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세계지질공원은 모두 화산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 국내 최초의 세계지질공원인 제주도는 화산성, 두 번째인 천성강과 세 번째인 무등산권은 내연의 산악지대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질공원이다.

또한 지질학적 가치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곡의 유적 및 고구려성인 당포성, 호로고구석 등 역사적 가치와 연천 일진강 생물권보전지역과 같은 생태적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한탄강 지질공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서 연천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큰 학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포함돼 있는 26개소의 지질명소 중 10개소가 연천군에 분포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제적인 자질학적 가치를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간주하는데, 유네스코로부터 인증받은 2곳의 지질명소(내대리 습곡구조와 만상열리, 아우라지 배계용암기) 모두 연천군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연천군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정지리 구석기 유적에서 근현대 유적에 이르기까지 문화유산이 강을 따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여기에 2019년 7월에 이루어진 유네스코 위원들의 현장심사에서 연천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당시 자발적인 자연보전활동과 관광 프로그램의 운영, 거기에 더해 연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이 유네스코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지질공원 후보지의 잠재력점수보다 위원들의 현장평가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매우 드문 사례가 일어나기도 했다.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와 지역발전

세계지질공원 제도는 지질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렇듯 학업을 위해 4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다만, 연천군에서는 현재의 지질유산과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인적자원이 함께 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26개 지질명소 중 10개소 연천군 분포

연천 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 가치 우수 체험상품·관광상품 등 관심 한눈에 지질공원 활성화와 지역발전 도모

우리처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이루 아꼈으며, 재인증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기념품, 숙박, 야외활동 등의 개별 관광상품과 이를 서로 연계한 복합 관광상품을 민관 협력으로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부합되도록 발전방향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북연천의 연계활동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체험상품(GEO Activity & Tour)

한탄강 지질명소에서 주민사업체와 지질공원 해설사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연천군의 대표 지질명소인 백의리층에서 아우라지 배계용암까지 이어지는 '지질명소 힐링 트레킹'과 일진강 추성열리의 절경을 물길을 따라 투어하는 '지오카와 투어링' 등은 한탄강 지질공원의 매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대표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천군 주민여행사를 운영하는 연천농촌관광CB센터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 전문 투어상품인 '한탄지오파크투어'를 개발했다. 여행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가족단위 여



행객의 자기용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투어를 기획하여 안전한 여행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체험형 관광상품(GEO House)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캠핑 인프라가 발달한 연천군의 경관을 살려 캠핑에 문화예술공원을 접목한 '지오파크 캠핑버스캠프(Geopark Camping Busking)'은 중상위층 연천객들로 차별화된 캠핑문화를 제안했다.

연천군 대표 농촌체험휴양마을인 푸르네마을은 마을의 수호신이자 지질명소인 좌상배위를 활용한 '좌상배위 보물찾기 마션 프로그램'의 개발로 기존 농촌체험에 지질공원의 테마를 더하여 체험마을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였다.

관광기념품(GEO Gift)

한탄강 지질공원만의 고유한 매력을 담아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도 개발했다. 이는 디자인에서 생산까지 모두 연천군 자력주도의 참여 주도로 이뤄져 그 의미가 크다.

아득한 시간을 거둬낸 한탄강변 한무암 조약돌을 그대로 형상화한 '조약돌 찬란베누'와 연천의 흙으로 지질의 단면을 분장자기에 새긴 '추성열리 미그린', 천연의 나무결과 모양을 무늬하게 실린 '추성열리 포크' 등은 관광지에서 만나기 일반적인 기념품들과 차별되는 연천 GEO 상품만의 가치와 감성을 잘 담아내고 있다.

그중 '햇돌 다육이 화분'은 지금은 잊혀진 연천 햇돌의 명성을 전하는 특별한 기념품이다. 연천 지역은 오래전 화산용암이 천천히 식어 형성된 화산대지로 제주도의 무너 한무암보다 강



도가 높은 단단한 한무암이 많아 전국 햇돌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었다고 한다.

테마음식(GEO Food)

기름진 용암대지와 절경지역의 큰 일교차가 커내 연천군의 농산물은 품질이 높기로 이름 높다. 햇밭의 신선함을 그대로 담아낸 'GEO 도사미'와 전국 최고 품질의 용무를 필두로 이 지역의 체질 식품으로 만든 디자인이 '물무 브루키'는 연천 지질공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맛있는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 브루키와 쿠기가 합쳐진 브루키는 천연 곡물과 식재료로 지질의 단면을 형상화해 재미와 맛을 더했다고 한다.

이번 연천군 'GEO 관광상품' 개발 사업에 참여한 전체의 참여 단체 연합 대표는 4대째 전승된 전통 육공 만들기 기술과 지역의 문화 역사를 바탕으로 '할 사냥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 초 예비창업자 신념으로 참여한 한 대표의 명성을 전하는 특별한 기념품이다. 연천 지역은 오래전 화산용암이 천천히 식어 형성된 화산대지로 제주도의 무너 한무암보다 강



연천 = 김현수 기자

